



HANNAH CHOI MINISTRIES

## 원수를 만나는 외나무다리

원수를 만나는 외나무다리

오늘은 '원수를 만나는 외나무다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2: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롬12:19) 살면서 깨달아지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는 늘 풍량이 있고 기쁜날과 슬픈날이 겹쳐져 있다는 것이며 만남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말 가운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아마도 외나무다리와 같은 상황에서 원수 같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 모두 내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년들이 그 어려운 공부와 군대를 마치고 밝은 미래를 그리며 사회로 진출해보지만 가는 곳마다 불합리 투성이임을 발견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계획한 채 사랑의 보금자리인 결혼으로 골인해 보았자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 거치는 희생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식은 어릴 때 자식이고 크고 나면 동지를 떠나 훨훨 날아간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동지를 튼 자식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려운 상황은 같습니다. 인생은 바다에서 풍랑에 흔들리는 한 척의 배와 같습니다. 바람이 순적한 날 다른 배를 만나 함께 동락하면 기쁨이 있고 풍랑이 심하게 불어와서 주위에 배들이 파산한 날에는 삶에 위험을 느끼는 두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힘이 들고 외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활짝 열고 인생의 풍랑을 나눌 수 있는 참다운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한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살만 합니다. 저도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믿음의 친구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들을 만나면 마치 오래된 편한 옷을 입은 것처럼 편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꼭 좋은 사람만 만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원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표준어국어대사전에 원수는 ‘명사로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또는 적과의 사이에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을 이른다’의 뜻이 있습니다. 원수는 멀게 살 수도 가깝게 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수를 마주 보고 살 수 밖에 없는 외나무다리와 같은 현실에 놓여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 임이니라”(야1:12)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롬 2:7) 위의 성경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험과 고난 속에 인내함이 필수적임을 알게 됩니다. 원수를 통해서 인내와 절제를 배우는 일이 어리석은 일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영생 입문을 위한 과정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있어 다윗은 원수였습니다. 사울왕은 세상 끝까지라도 다윗을 쫓아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왕을 용납하며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가 사울왕을 잇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로 될 줄 알고 역올한 도망자로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사울왕의 최후를 위해 슬픔과 덕망을 갖추었던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송두리채 양도한 순종과 자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윗왕 처럼 원수를 통해서 인내로 연단하십니다. 그렇게 연단된 사람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고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악한 마귀는 시선의 초점을 원수에게 집중하도록 하여 당신을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무산하려고 총공격을 다 할 것이나 속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성경의 진리를 더욱 배우고 기도하며 사랑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를 기억하십시오.